

2025년 10월 31일

외환파생상품영업부

◆ Hana FX Column

◆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원화 시장에 대한 향후 영향 점검

금번 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대한 주요 내용

10월 말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한-미 관세 협상 당국자들은 그간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대미투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도 15% 인하하기로 큰 틀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합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간 한-미 통화스왑 무산 등으로 외환시장에 대해 우려가 컸던 만큼 환율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주요 내용)

-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규모

금번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는 총 3,500억 달러로 한-미 공동의 투자 패키지에 대해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나머지 1,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조선업 협력 형태의 투자 및 보증을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이 중 2,000억 달러에 대해 10년간 연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안에 대해서만 투자하기로 합의. 특히, 연 200억 달러에 대해 '외환시장의 감내 범위' 내에서 단계적 실행을 원칙으로 하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

- 관세 조정 관련 내용

그간 25% 관세를 적용 받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15% 관세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의약품과 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수익 배분에 대한 원칙

한-미간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5로 수익을 배분하고, 20년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 받지 못할 경우 수익배분 비율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투자 자원 조달 형식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한-미 투자 협정에서 외화조달 방식에 대해 정책실장은 시장 매입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여기서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은 우리 보유 외화자산을 통한 운용수익, 즉 배당이나 이자 등을 통해 연한도 200억 달러 투자 자원 마련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서 한은 총재가 외환보유액 등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고 한 150~200억 달러 수준에 거의 부합하는 수치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하는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감소한다면 운용수익이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정부 보

중 형식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게다가 그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기 사항을 고려하면,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대미 투자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되어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쪽으로 금번 협상 영향이 발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합의 다음날 원화는 장중 15원 가까이 하락한 1,419원대를 보이다 5원 하락한 1,426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한-미 협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음에도 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리스크 요인이 상당 부분 상존함을 나타낸다고 평가되어지는 부분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협상 결과의 평가 및 향후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원화 방향성

이번 대미투자 협상 결과는 그간 국내 외환시장 우려를 반영, 지속적으로 협상의지를 내보였던 무제한 통화스왑 무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우리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로 급격한 외화 유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외환시장에 중장기적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은 그들이 요구한 규모의 투자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윈-윈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우리 외환시장 입장에서 환율 불안이 대두될 시, 납입 시기, 규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미투자 협상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도 원화 환율은 1,420~1,430원대를 유지하는 흐름 속에 협상 결과는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즉, 이는 원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인들 중 일부 영향만이 해소된 가운데 여전히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주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연말 이후 내년초반까지 면밀히 봐야할 리스크 요인들은 역시 매파적으로 보이는 연준 통화정책, 성장모멘텀이 다소 회복되었지만 수출 부문에 있어서의 쏠림에 따른 국내 경기 회복성 지속에 대한 대외 시각 등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외국인 자본 흐름 등이 여전히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제한하는 가운데 '26년 1분기 시점까지 1,395~1,420원 수준에서 원화는 주 레인지를 형성할 것으로 사료된다.